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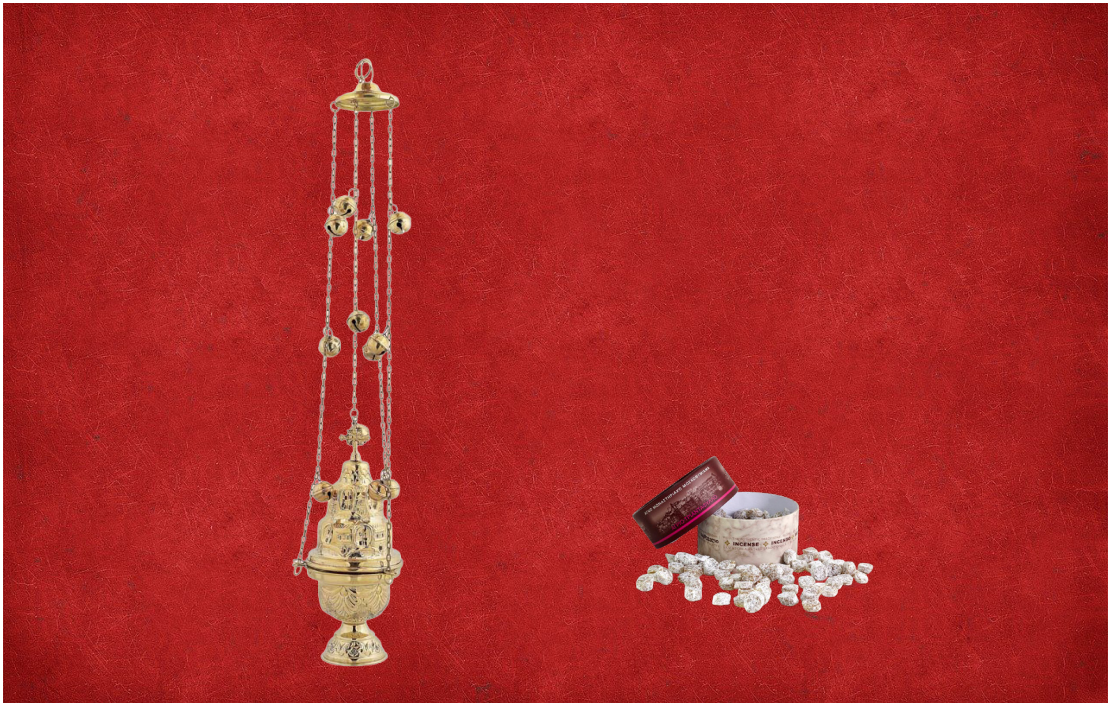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523호

2025년 5월 4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3주일 (향유가진 여인 주일)

성 벨라기아 수녀순교자
성 일라리온 수도자
(제2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2조 찬양송 " " 10
- 아리마태아 요셉 찬양송 · " " 75
- 향유가진 여인 찬양송 · " " 76
- 부활 시기송 " " 39
- 사도경 : 사도행전 6,1~7 252
- 복음경 : 마르코 15,43~16,8 ...98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사진 설명

향로,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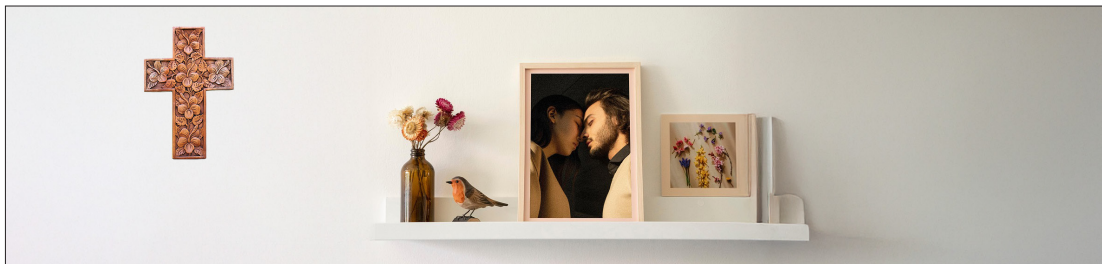
향로와 향의 사용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으로, 하느님께서 친히 명하신 예배 행위 중 하나이다.

향로(사진 왼쪽)의 손으로 잡는 윗부분은 원뿔형이며, 아랫부분의 향로는 덮개가 있는 컵 모양이다. 이곳에 숯을 넣고 향을 피운다. 향로의 바닥은 땅을, 덮개는 하늘나라를, 4줄의 사슬은 4명의 복음 저자를, 사슬에 매달린 12개의 방울은 열두 사도를 상징한다. 향로를 흔들면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천사들의 찬양을 의미한다. 집전 성직자는 향로를 사용하여 성당, 봉헌물, 성화, 신자 등에게 분향하는데, 이는 “나의 기도 분향으로 받아 주시고 지켜 드 손 저녁의 제물로 받아 주소서.”(시편 141,2)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느님께 향하는 기원을 담고 있다.

향(사진 오른쪽)은 유향과 여러 천연수지, 향신료, 오일 등을 섞어 만든다. 분향함으로써 영적으로 정화하고, 악을 쫓으며,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정 교회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주 ‘가정’을 방문하셨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회당이나 광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집으로 찾아가셨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가정이 복음의 시작점이자 신앙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가정이 있었다. 바로 베다니아에 살고 있던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삼 남매의 집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 자주 머무르셨고, 함께 식사하셨다. 베다니아의 이 작은 가정은 주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드렸다.

라자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요한 11,35)라고 성서는 기록한다.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친구 라자로를 향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과 라자로의 친구였고, 그 우정은 베다니아의 가정에서 피어난 관계였다.

또한 우리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보게 된다. 마르타는 주님을 위해 분주히 봉사하였다. 그녀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다. 반면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너는 많은 일

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루가 10,41-42). 이 말씀은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이 신앙의 본질임을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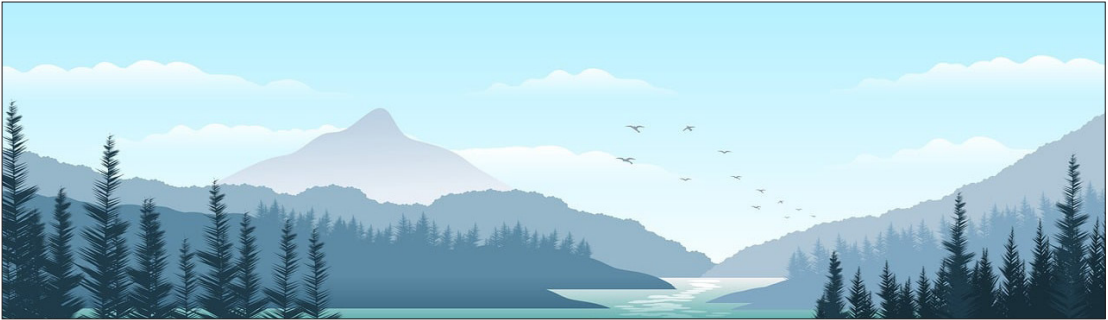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머무시기를 기뻐하시는 베다니아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겠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가정은 곧 교회가 된다. 작은 가정교회들이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교회,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방식이다.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모셔야 한다. 구원은 단지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은혜이다. 주님 안에서 가정이 변화될 때, 교회도 세상도 변화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가정 교회’의 소중한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가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하느님의 사랑 앞에 서서

바르톨로메오스 수도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하느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들더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하였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유는 사랑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낳은 선물이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사랑에서, 사랑을 위해, 사랑으로 행하셨다.

이런 사랑 앞에 서서, 우리는 그분에게 봉헌할 어떤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랑 앞에서, 누가 무관심한 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사랑 앞에서, 어떤 마음이 떨지 않겠는가?

이런 사랑 앞에서, 이기심이 어떤 가치를 갖겠는가?

이런 사랑 앞에서, 어느 누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사랑 앞에서, 누군들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랑 앞에서, 누가 하느님을 보지 못하겠는가?

주간 예배 안내

* 5월 8일(목)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
하시어 예언하신대로 우리에게
영생과 큰 은혜를 베푸셨도다!

알림

■ 故 권언건 바울로 사제 안식 8주년 추도식

지난 주일(4월 27일), 울산 성당과 용미리 교회 묘지에서 성찬예배에 이어 바울로 사제의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생전에 말년까지 극진한 사랑과 헌신으로 한국 정교회를 위해 봉직했던 바울로 사제를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그분이 천상에서 부활의 빛 속에 머물며 한국 정교회를 위해 중보해주시기를 기원하며, 바울로 사제의 가족분들 역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부활의 빛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다음 주일(11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대교구 미디어 채널 안내

대교구 미디어 사업이 OKN(Orthodox Korea Network)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되어 소식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위의 3가지 채널로 연결됩니다. linktr.ee/orthodoxkorea

영성의 샘터

당장 회개하라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생각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오늘 말고 내일 회개하라고 회유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오늘 나는 행동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하느님의 뜻에 맡길 것이다.”

